

성화(聖化)의 삶

(에베소서 4장 25절 ~ 4장 30절)

10월 15일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모든 것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벗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새로 입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 벗어 버릴 것과 새로 입을 것 (엡 4:25~30)

25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26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27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28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29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30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 가지 인성의 모습을 서로 대비되는 형식으로, 벗어 버릴 것과 새롭게 입을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대비되는 인성은 전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위의 성경 구절에서는 4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참된 것을 말하라 (25절)

“그러므로”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복음을 배우고,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라는 뜻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짓으로 인하여 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사탄은 우리의 관계를 깨려고 할 때는, 언제나 거짓된 소문으로 접근한다. 모든 거짓말의 근원은 사탄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거짓을 말하면 한 몸된 지체가 깨어진다고 말하며, 오직 참된 말을 할 때에만 우리의 삶이 개혁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 진다고 말한다.

2) 서로 용납하라 (26~27절)

사람들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정당한 분노를 일으킨다. 그 이유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의로운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의 감정이다.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격노하셨다.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불의한 일을 보며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분노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서, 마귀에게 틈을 줄 정도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람의 화난 감정이 과격할 말이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 선한 일을 하라 (28절)

십계명에도 (제 8 계명)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쑤는 구약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도둑질은 남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을 포함하여 노동 착취, 근무 태만, 탈세 등등 불의한 이익, 더러운 이익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도둑질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빈궁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가르친다.

4) 선한 말을 하라 (29절)

“나쁜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 로 ‘사프로스 (sapos)’ 라고 하는데, 썩은 나무와 썩은 열매라는 뜻이다. 나쁜 말은 썩은 말 (정직하지 못한 말, 친절하지 못한 말, 속된 말) 이고, 악한 말이다. 가정교회에서는 친·정·필·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뜻은 목장이나 교회에서 친절한 말을 하고, 정직한 말을 하고, 필요한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자는 운동이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됨을 이루는데는, 선한 말이 아주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다. 선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목장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성화의 삶을 실천 하려면,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이 중요하다. 어떤 의미로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서로의 선한 관계에 합당하지 않다고 바울 사도는 가르친다. 바울은 사람들의 행동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인 성령님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도덕적인 분이시며, 피조세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성화의 삶을 살려면, 참을 말하고, 서로 용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자.
- ‘친·정·필·세’ 를 목장과 교회에서 훈련하고 실천하자.
- 개인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개인들이 모여서 한 몸된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